

# 한강의 「채식주의자」 부부 관계 분석 :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Marital Relationship in “Vegetarian” of the Han Gang : Focusing on Object Relation Theory

최지원

서울신학대학교 학생상담센터

Ji-Won Choi(jwony324@stu.ac.kr)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에 등장하는 인물의 심리 역동과 체계 속에서의 관계 패턴을 위니컷의 대상관계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채식주의자'는 이미 다양한 각도로 분석되고 재해석된 바 있으나 대상관계이론을 적용하여 살펴본다면 가족 체계 안에서의 인물 심리 분석과 부부 관계 역동, 세대 간에 걸친 필연적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채식주의자 인물의 대사 속에서 표현되는 각 인물의 성격과 심리역동을 탐색하고 대상관계이론과 개념으로 부부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실제 임상 사례가 아닌 소설 속 인물을 이론에 근거하여 심리 분석 및 탐색하는 과정은 추후 임상 장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들의 삶의 스토리를 재해석하는데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실제 사례만이 아니라 예술을 활용하여 인물 및 관계 분석을 함으로써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임상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인물 분석을 통한 의미 탐색이 누적될 때 임상 실천의 장 또한 함께 확장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한강 | 채식주의자 | 부부관계 | 관계역동분석 | 대상관계이론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psychological dynamics of the characters in the novel 'vegetarian' of the Han Gang and the relationship patterns in the system by applying object relation theory. 'Vegetarianism' has already been analyzed and reinterpreted in various angles, but if you look at it from the object relationship theory and the systematic perspective, you can understand the inevitable history of the generation through psychological analysis and relation dynamics of the person. First, we will analyze the psychological dynamics of the characters by analyzing the meanings and exploring the meaning with the object relation theory and concept. The psychological analysis and the search process of the characters based on the theory are enough evidence for the counselor to reinterpret the life story of the client in the future clinical scene. In addition, in order to realize ethical but practical clinical education, the field of clinical practice will be extended when analyzing the characters using art. It is suggested that the meaning search through various character analysis needs to be accumulated culturally.

■ keyword : | Han Gang | Vegetarian | Couple | Analysis of Relational Dynamics | Object Relations Theory |

\* 본 연구는 서울신학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20년 10월 19일

수정일자 : 2020년 11월 23일

심사완료일 : 2020년 11월 29일

교신저자 : 최지원, e-mail : jwony324@stu.ac.kr

## I. 서론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I-You)'의 관계와 '나와 그것(I-It)'의 관계가 세상에 존재하고, 진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와 너(I-You)'의 관계는 서로가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관계이며 유일한 '나'와 대체 불가능한 '너'가 깊은 신뢰 속에 존재한다. 결국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1].

인생 초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중요한 타자(object)와의 관계를 정신적인 표상으로 갖는 것,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의 틀로 내면화 한 것을 대상관계라 부른다. 대상관계란 자기표상과 대상표상, 이 둘을 연결하는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 인생 초기 경험한 자기표상과 대상표상간의 교류 에너지 및 정서를 기억하는 형태이다. 인간은 인생에서 주요한 타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융합하여 자신과 대상에 대한 체계적 표상을 구축하고 내면에 자리 매김한다. 주요 타자가 관계 속에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관심과 보살핌은 자녀의 내면에 긍정적인 지각과 정서가 혼합된 긍정 표상으로 자리 잡고, 타인과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돕는다. 양육자와의 만족스럽고 충족된 관계는 내면의 자아 구조로 통합되어서 자기 가치감을 갖도록 도울 뿐 아니라 정체감을 구축하게 한다[2].

초기 대상관계에서 형성된 긍정적 관계 경험을 자신에게 내면화한 자녀는 자신이 사랑받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존재감을 느끼게 되고 발달단계를 지나 성인이 되어도 스스로 건전한 자아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된다[3]. 반대로 유아기 시절 충분한 돌봄이 부재했을 경우 자아 형성에 상처를 입게 된다. 따라서 불충족한 돌봄을 스스로 채우기 위해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짓 자기를 형성하고 왜곡된 자아 성장을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불충분한 돌봄에서 비롯되어 무의식적으로 내부에 억압된 '갈망하는 자아(exciting ego)'를 대상에게 투사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배우자이다[4][5].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배우자의 선택 과정과 결혼 생활의 정서적 만족이 어린 시절의 대상관계 표상과 관계 질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한다.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억압된

부분이 배우자를 통해 대리만족을 할 뿐 아니라 만약 배우자에 의해 자신의 욕구가 수용되는 경우 억압된 갈망이 의식 위로 천천히 떠오르면서 통합 되어가고 결국 성숙한 인격으로 발전할 수 있다. 반대로 갈망의 욕구가 비난의 표적이 된다면 방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자아는 상처입고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이처럼 부부선택의 과정은 대상관계 이미지의 투사이며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부부관계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란 남녀가 결혼이라는 제도 및 의식에 의해 만드는 것으로 비 혈연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밀접한 인간관계를 일컫는다. 부부란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서로 충족시켜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며, 너와 나의 단순한 합일이 아닌 결합으로 이루는 새로운 '우리'라는 관계이다[6]. 이처럼 부부관계는 가장 역동적인 이자 관계이다. 대상관계이론에 의하면 부부관계는 유아와 엄마 사이에 벌어지는 미묘한 정서적인 역동이 훗날 결혼 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재현되고 수정되며 새롭게 재구성되는 여정을 반복한다[7]. '과연 아름다운 환상을 창출하는 이자관계는 어떤 관계이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일까'를 탐색하는 것이 부부 역동을 바라보는 대상관계이론의 관점인 것이다.

본고는 2016년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한 한강의 「채식주의자」[8] 소설 속 등장인물의 역동과 관계 패턴을 대상관계이론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채식주의자」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에코페미니즘의 관점, 욕망이론과 트라우마 관점에서 다양하게 살펴본 바 있다[9-12]. 구태여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폭력과 힘의 지배문화를 비판하거나 모성이데올로기를 집중하지 않더라도 한강의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 3부작에 존재하는 각 인물들은 현실 속 그들처럼 친근감을 주면서 마치 발달단계에서의 내적인 정신 표상을 상징적으로 조우하는 듯 결코 간결하지는 않다. 본고에서는 먼저 「채식주의자」에서 보이는 영혜와 영혜의 남편 부부관계를 대상관계이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것이다.

「채식주의자」를 '이전의 상처에 대한 서사를 응축시킨 작품'이라고 표현하거나[9], 트라우마 이론에서 살펴본 바 있으나[12], 본고는 이 작품 속 인물과 부부관계를 대상관계 이론에서 살펴보고, 애착 대상을 향한 관

계 패턴을 원가족 체계 안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정신 분석에서 일차적으로 피분석자의 사용 언어와 기술, 감성적 경험에 의존하는 것처럼 텍스트에 기반 한 소설 인물의 역동 분석은 질적 연구나 민족지학(ethnography)으로 간주될 수 있다[13]. 대상관계이론을 사회 문제와 현장에 개입시키는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가 작품 및 인물 분석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현실 속 사례가 아닌 인물의 전형성을 지닌 문학 속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은 증상과 개선 방법을 윤리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소설 속 인물은 인간의 본능에 충실하고 상징계를 통한 윤리적 일탈이 가능하므로 임상 사례를 다루는 것보다 독자에게 안전감을 제공할 수 있다[13].

따라서 보고는 문학 분석에 탁월한 이론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투사적 도구, 대상관계이론을 통해 육식주의자로 대표되는 대상의 공격성을 수동적으로 대응해 온 인물, 영혜가 '채식주의자'에 대한 열망을 가짐으로써 스스로를 파괴하는 공격성의 내재화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불충족한 대상의 돌봄을 궁극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주체는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통해 실현하는 것임을 발견하고자 한다. 그 다음 영혜와 영혜 남편의 부부관계를 대상관계이론으로 분석하며, 삶의 스토리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부부관계를 연구할 경우 원가족 내 부모자녀 관계를 같이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관계이론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오는 경험을 토대로 하는 만큼 가족적인 문화 특성과 관계 역동을 하나의 체계로 포괄하여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4].

## II. 부부관계 분석: 영혜와 영혜 남편

### 1. 영혜 남편의 애착 대상 선택 과정\* 1

영혜 남편의 시각에서 써내려가는 1부 「채식주의자」는 영혜를 애착대상으로 선택한 남편의 시각에서 기술된다. 남편의 자기중심적인 묘사와 주관적인 정서가 담

겨 있을 뿐 아니라, 기술된 영혜의 행동은 증상으로 표출되고 있는 가족 간의 역동과 병리적 관계를 내포한다. 영혜 남편이 영혜를 괴이하게 바라보고 타인처럼 평가한다 할지라도, 영혜의 행동은 같은 공간에서 발생한 서로 연결된 부부체계의 이야기라 볼 수 있다. 성인이 되어 새롭게 애착 대상을 선택하고 결핍된 욕구와 미해결과제를 채우고 싶은 것은 우연보다 필연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애착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주요한 결핍 요인과 그것을 채우고 싶은 욕망으로 연결된다. '과분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언제나 그랬다.'는 표현은 영혜 남편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나 자긍심이 없었기에 내 자아의 영역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대상을 선택하고 싶었던 욕구를 드러낸다. 특별히 아내인 영혜를 대상으로 사용한 동사들, '편안했다.', '위축될 까닭도 없었다.',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다.'는 언어적 표현은 긍정적 정서보다 부정적 정서를 느끼지 않을 수준으로, 무갈등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싶은 영혜 남편의 내적 열망이 드러난다.

*"내가 그녀와 결혼한 것은 그녀에게 특별한 매력이 없는 것과 같이 특별한 단점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신선함이나 재치, 세련된 면을 찾아볼 수 없는 그녀의 무난한 성격이 나에게서는 편안했다. 굳이 그녀의 따움을 사로잡기 위해 박식한 척 할 필요가 없었고,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허둥대지 않아도 되었으며, 패션 카탈로그에 나오는 남자들과 스스로 비교해 위축될 까닭도 없었다. -중략- 언제나 나는 과분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다. 어린 시절에는 나보다 두세 살 어린 조무래기들을 거느리고 다니며 골목대장 노릇을 했고, 자라서는 넉넉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에 지원했으며, 내 대단찮은 능력을 귀하게 여겨주는 작은 회사에서 내세울 것 없는 월급이나마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는 데 만족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여자로 보이는 그녀와 결혼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예쁘다거나, 총명하다거나, 눈에 띄게 요염하다거나, 부유한 집안의 따님이라거나 하는 여자들은 애초부터 나에게 불편한 존재일 뿐이었다."* 「채식주의자」 p. 9~10

긍정적 정서를 느끼는 능동성보다 부정적 정서를 느

1 「채식주의자」 작품 속 대사를 인용하여 이탤릭체로 표시하고, 이후는 작품의 페이지만 밝히고자 한다.

끼고 싶지 않은 수동성은 결과적으로 상호작용 부재와 연결된다. 영혜 남편의 ‘(아내가)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일은 드물었고,’라는 표현이나 ‘자신들의 아내와 요란한 부부싸움을 벌이 곤하여 피곤하게 느껴진다는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다른 상황이어서 나는 감사히 여겼다.’라는 표현은 부부간 상호작용의 부재를 의미한다. 영혜 남편은 부정적인 정서 자체를 느끼지 않기 위해 관계 소통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다. 그는 애착 대상과 긍정적 정서를 적극적으로 획득하기보다 부정적 정서를 최대한 회피하는 최적의 상황을 누리고 싶은 리비도적 욕구를 갖고 있다. 서로에게 끌린 영혜 또한 비슷한 욕구를 소유한다. 결국 둘은 평온한 관계를 최대한 유지하고 싶기에, 갈등이 생기지 않는 최소한의 상호작용을 시도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 기대에 걸맞게 그녀는 평범한 아내의 역할을 무리 없이 해냈다.’처럼 영혜는 자연스럽게 가계에 보탬이 되거나 아침 여섯시에 아침을 차려 주는 등 남편을 성가시게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했을 것이다. 갈등은 화를 만들고 화는 폭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인과관계를 원가족 내에서 습득한 영혜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상대가 원하는 욕구를 채워주고 갈등 없는 관계를 적당히 유지함으로써 남편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는 노력을 했을 것이다.

부부관계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얻은 경험에서 파생되고[14][15], 부부관계의 질과 패턴은 배우자 각각의 대상관계 성숙도와 분리 개별화에 영향을 받는다.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결핍되고 좌절된 부분들이 내면에 억압되어 있다가 배우자를 선택하면 동일시 과정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배우자의 선택은 의식적인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수준에서의 선택이다[14]. 부부간의 투사적 내사적 동일시는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하는 것으로 배우자는 서로에게 자신의 억압된 흥분하는 자아(exciting ego)를 투사함으로써 상대가 이를 받아주면 스스로 만족감을 추구하고자 한다[16]. 반대로 서로에게 매력 포인트의 요소로 다가왔던 흥분하는 자아와 관련된 욕구들이 결혼 후 비난의 표적이 된다면, 방어조차 할 수 없이 상처를 입고 갈등이 증폭된다. 영혜와 영혜 남편도 무의식적인 욕구 투사 과정으로 서로를 선택했다. 그러나 관계를 통해 만족감을 갈망해 온 서로

는 결국 자아의 성숙도 수준과 대상관계 수준에 의해 선택한 결과로, 배우자에 대한 회의감을 경험하는 결정적 사건과 계기를 마주한다. 영혜와 남편은 최대한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적정의 경계선을 유지하며 서로에게 다가가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사건, 칼날이 씹히는 이벤트로 둘은 서로에게 수용되지 못 할 공격성을 직면하고 만다. 정신역동 측면에서 이런 이벤트는 예정된 것이며, 잠재되었다가 표면에 드러나는 때이므로 결정적인 순간으로 간주된다. 마치 굳게 닫힌 자물쇠에 딱 맞는 열쇠가 들어갈 때 열리는 과정처럼, 결정적인 사건은 서로의 관계를 직면하게 돕는다.

## 2. 욕구를 채워줄 수 없는 애착 대상(Object)을 향한 분노

“그 꿈을 꾸기 전날 아침 난 얼어붙은 고기를 썰고 있었지. 당신이 화를 내며 재촉했어. 제기랄, 그렇게 꾸물대고 있을 거야? 알지, 당신이 서두를 때면 나는 정신을 못 차리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허둥대고, 그래서 오히려 일들이 뒤엉키지. 빨리, 더 빨리. 칼을 쥔 손이 바빠서 목덜미가 뜨거워졌어. 갑자기 도마가 앞으로 밀렸어. 손가락을 뺐 것. 식칼의 이가 나간 건 그 찰나야. 검지손가락을 들어 올리자 붉은 핏방울 하나가 빠르게 피어나고 있었어. 둥글게, 더 둥글게. 손가락을 입속에 넣자 마음이 편안해졌어. 선홍빛의 색깔과 함께, 이상하게도 그 들끓는 맛이 나를 진정시키는 것 같았어. 두 번째로 집은 불고기를 우물거리다가 당신은 입에 든 걸 뱉어냈지. 반짝이는 걸 골라들고 고향을 질렀지. 뭐야 이걸 칼조각 아냐! 얼그러진 얼굴로 날뛰는 당신을 나는 우두커니 바라보았어. 그냥 삼켰으면 어쩔 뻔했어! 죽을 뻔 했잖아! 왜 나는 그 때 놀라지 않았을까. 오히려 더욱 침착해졌어. 마치 서늘한 손이 내 이마를 짚어 준 것 같았어. 문득 썰물처럼,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미끄러지듯 밀려나갔어. 식탁이, 당신이, 부엌의 모든 가구들이. 나와, 내가 앉은 의자만 무한한 공간 속에 남은 것 같았어. 다음날 새벽이었어, 햇간 속의 피 웅덩이, 거기 비친 얼굴을 처음 본 건.” p. 26~27

아침부터 식사 준비를 하는 아내에게 화를 내며 재촉하는 영혜 남편의 행동은 어린 시절 영혜가 경험한 트라우마를 직면하게 만든 도화선이 되었고 극도의 불안감을 야기한다. 이 순간에 영혜는 자신을 공격하려는 대상에게 무의식적으로 수동 공격적인 대응을 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손가락을 칼에 베이도록 만든다. 이때 식칼의 잘린 이는 남편이 먹은 불고기에서 나온다. 남편은 자신이 죽을 뻔 했다고 노발대발하며 영혜에게 고향을 지른다. 영혜는 그 어느 때보다 둔감하게 우두커니 바라본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불안 역치를 넘어서는 자극이 아닌 한 상황을 무감각하게 지각할 수밖에 없다. 영혜는 이 순간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과 그것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한 어머니와의 관계가 겹쳤을 것이다. 결국 영혜는 이 사건이 촉발제가 되어 강렬한 꿈을 꾸고,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는다. 고기를 먹지 않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영혜는 ‘꿈’을 꼽는다. 남편이 한 밤 중에 아내가 일어나 비닐봉지에 고기들을 왜 담아 넣는지 이유조차 궁금해 하지 않고 그저 행동 자체를 비난하는 무관심한 행동을 보일 때, 영혜는 한 문장으로 함축하여 마음을 표현한다.

*“꿈을 꿔어.”* p.16

인간은 꿈을 통해 인격 완성의 소망을 충족한다. 프로이트는 ‘억압된 것은 반드시 회귀한다.’ ‘꿈은 소망을 충족하려 한다.’ 라고 말했다[18]. 무의식이 의식에게 걸어오는 대화가 꿈이라는 점과 못 다 이룬 욕망의 서사적 표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애착 대상인 배우자는 이렇게 반응해야 하는 적합할 것이다. “어떤 꿈이었어? 꿈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고기를 다 버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걸까?” 작은 호기심, 순수한 관심은 상대방에게 질문하게 만든다. 평상시에 영혜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애착 대상이라면 영혜에게 이렇게 물었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설령 타인은 영혜의 행동을 기이하고 병리적이라고 평가했을지라도, 남편이 아내에게 질문을 했더라면 충분히 근거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여겼을지 모른다. 남편은 아내 행동의 원인에 관심 갖기보다 행동의 표면을 평가하고, 그 행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일 먼저 신경 쓴다. 그리고 자

신이 배우자를 선택하면서 가장 원했던 편안한 상태의 유지, ‘항상성’이 깨지는 것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표현한다.

*“미쳤군. 완전히 맛이 갔어.”* p.17

이런 영혜 남편의 모습은 영혜가 병실에서 사라진 후 야외 벤치에 환자 상의를 벗고 앉아 있을 때 깨진 항상성에 대한 진심이 곧바로 나타난다.

*“나는 마치 타인인 듯, 구경꾼들 중의 한 사람인 듯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중략) 나는 저 여자를 모른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p.64

영혜와 영혜의 남편은 자신의 대상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항상성 유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내적 대상을 선택하고 곁에 두었을 뿐이다. 그 대상은 내 필요를 채우고 편안함을 유지시켜 줄 경우만 애착대상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다. 영혜의 남편은 자신과 닮은 상처를 가졌으나, 과하지 않게 항상성 유지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영혜를, 애착대상으로 선택하였다. 그 대상의 욕구, 좌절 그리고 소망 따위는 영혜의 남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자신의 자아 존중감을 채워줄 수 있는 욕구 투영의 대상으로 영혜를 선택하였기에 영혜의 남편은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의 편안함을 누리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지녔을 뿐이다. 영혜 뿐 아니라 영혜의 남편 또한 자기중심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뿐 양육의 행동이 충분하지 않고, 상당히 통제적이고 지배적인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을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즉 영혜와 영혜 남편은 서로 닮은 상처를 갖고 있고 자신들의 미해결과제, ‘평범하게 살고 싶다.’를 애착 대상에게 투사하여 무의식적인 과정으로 서로를 선택하게 된다. 위니컷이 언급했듯이 자신이 선택한 배우자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은 ‘따뜻하고, 든든하고, 반격하지 않는, 큰 품에 대한 것이다’ [19]. 영혜는 이 환상에 의한 관계의 질을 기대했을 것이고, 기대에 의한 반응을 예측했을 것이다. 영혜의 환상은 남편의 행동에 의해 산산이 깨졌고 자신의 초기 애착대상인 부모의 공격적인 대처와 다를 바 없음을 깨닫는다. 이 실망감과 좌절은 유아시절 애착대상에게서

경험한 것보다 훨씬 크고 절망적이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누구의 선택이 아닌 자신의 결정이었고, 성인의 자각으로 나름 신중한 절차를 밟아 선택한 애착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생물학적으로 부여받은 애착 대상, 부모를 통한 좌절 경험보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애착대상을 통한 실망감은 내성이 약할 수 밖에 없다. 자신의 미해결 욕구가 새로 선택한 애착대상을 통해 더 이상 채워질 수 없다고 확신한 순간,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버릴 수 없는 유아시절 애착대상과 다르게 자신의 선택 대상에 대한 유기 결정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가 고르고 고른, 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던가. (중략) 정말이지, 나에게서는 이상한 일들에 대한 내성이 전혀 없었다.” p. 26*

### 3. 반복되는 접촉 실패: 애착대상(Object)이 아니라 자신(Subject)에게 분노 표출

애착 대상과의 접촉 실패는 육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일어난다. Bowlby의 애착이론에서 초기애착장애가 성인기 성적파트너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아동기 때 형성된 ‘내부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은 성인이 된 후 파트너와 맺는 애착유형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즉 안전형에 속한 사람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따뜻한 돌봄을 받았다고 보고하며, 회피형은 파트너를 의지하고 수용하는 것에 거부감이 들고, 불안-양가애착형은 친밀감을 표현하는 반면에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못 받은 사랑에 대한 갈망이 뒤엉켜 있다[17]. 어린 시절 대상관계와의 만족스러운 경험들이 중심자아의 영역이 된다. 중심자아의 영역이 넓을수록 대상 이미지가 성숙하여 관계가 안정될 수 있다. 대상 이미지가 성숙할수록 결혼 생활에서 환상을 덜 가지고 현실적인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근거할 때, 영혜의 남편은 애착 대상과의 갈등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으로 그려진다.

*“더욱 신경 쓰이는 것은 그녀가 더 이상 나와 섹스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내는 늘 균말 없이 내 몸*

*의 요구에 응하는 편이었고, 때로는 먼저 내 몸을 더듬어올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손이 어깨에 닿기만 해도 조용히 몸을 피했다. 언젠가 나는 이유를 물었다. 뭐가 문제야? 피곤해, 그러니 고기를 먹으라고. 고기를 안 먹으니 힘이 없지. 전에는 이렇지 않았잖아. 사실은 뭐? ...냄새가 나서 그래. 냄새? 고기 냄새. 당신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나.” p. 24*

고기냄새는 사실상 육식주의자의 땀구멍에서부터 나는 살 냄새를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남편에게서 느낀 공격성과 폭력, 억압해 온 대상에 대한 적개심을 깨운 세포들에 대한 냄새까지 증의적으로 내포한다. 그리고 영혜가 남편에게 멀어지고 유기되기 위해 다른 종족이 되기로 결심한 선택 과정이 바로 「채식주의자」이다. 이는 영혜 스스로에 대한 분노의 내사 과정이기도 하고, 원초적 상태로 되돌아가 스스로를 돌보는 자생적 역할을 하고픈 욕구이기도 하다. 원초적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욕구와 스스로에게 모성적 돌봄, 수용을 제공하려는 시도는 구속처럼 착용했던 브래지어를 벗으려한 영혜의 행동에 내포된다.

*“(중략)... 내가 믿는 건 가슴뿐이야. 난 내 젖가슴이 좋아. 젖가슴으론 아무것도 죽일 수 없으니까. 손도, 발도, 이빨도 새치 혀도, 시선마저도, 무엇이든 죽이고 해칠 수 있는 무기잖아. 하지만 가슴은 아니야. 이 등근 가슴이 있는 한 난 괜찮아. 아직 괜찮은 거야. 그런데 왜 자꾸만 가슴이 여위는 거지. 이젠 더 이상 등글지도 않아. 왜지. 왜 나는 이렇게 말라가는 거지. 무엇을 찌르려고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거지.” p. 43*

대상관계에서 표현하는 좋은 젖가슴과 나쁜 젖가슴은 대상과의 상호작용으로 경험되는 표상을 의미한다. 영혜가 유독 집착한 젖가슴은 중요한 표상으로, 영혜가 만족스러운 대상 이미지를 갖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자신이 젖가슴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안정감을 느꼈고, 스스로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된다. 영혜가 폭력적이지 않고 타자를 죽일 수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등근 비폭력 형태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이란 바로 젖가슴을 가진 식물인간이 되는 것뿐이다. 식물만

이 비폭력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극치의 유기체가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영혜가 공격성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보다 내사하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는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것은 빈도와 상관없이 찾아왔던 아버지의 강렬한 폭력 행동에 의해 누적된 영혜의 익숙한 대처일 수 있다. 이 대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공격성 내사 과정은 영혜가 무기력하게 방관할 수밖에 없었던 삽화,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비참하게 죽어 간 반려견의 죽음을 애도하는 행동이다. 둘째, '브레이저를 좋아하지 않는다.'의 의미는 영혜가 어떤 대상에게서도 구속받거나 통제받고 싶지 않다는 욕구, 종속되지 않겠노라는 욕망을 드러낸다. 셋째, 현실적으로 영혜가 여성이라서 제한받았던 문화적 불문율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 넷째, 심리 내적으로는 둥근 것에 대한 사유, 좋은 젓가슴에 대한 내적 열망을 표현한 것이다. '답답해서, 브레이저가 가슴을 조여서 견딜 수 없다고 아내는 변명했다.'라는 대사처럼 영혜는 물리적이지 않은 심리적 자유를 스스로에게 제공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 자생적으로 모성적 돌봄을 제공하려고 했다. 애착 대상인 남편과 연결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접촉 실패를 경험하며 영혜가 최종 선택한 결과는 자신에게 분노를 내사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으로 양가 분립되는 유기체가 아니고, 동물적 속성으로 표상되는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는 대상이 바로 '식물'이기 때문이다. 영혜가 식물이 되기 위한 과정은 동물성향의 거부, 채식주의라는 섭식 성향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영혜는 전혀 다른 유기체로서 자생을 꿈꾸며 강렬한 열망으로 미미한 시도를 준비한다.

#### 4. 원가족 관계에서의 분노 재생(replay)과 자생적 재생(reborn)

영혜의 가족이 인혜의 새로 이사한 집에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본격적인 폭력의 장면이 재연된다. 영혜의 아버지는 "어서 먹어."란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라는 영혜의 단호하고 명확한 문장을 듣고도, 불가해하다는 입장만 앞세우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영혜가 고기를 먹게끔 무력을 행사한다. 이는 자녀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채깅을 가장한 폭력이며, 원가족 내 분노 재생 과정을 나타낸다. (p43부터

52까지)

동생이 말하는 "누나, 그냥 좋게 먹어. 누나가 받아서 먹어." 는 영혜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수용성이 아닌 수동성을 강요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대상을 길들여 자연스럽게 학대를 이어갈 수 있는 메커니즘의 고리가 된다. 결국 영혜가 과도를 잡고 자신의 손목에 자해하게끔 촉발한 것이다. 영혜가 처음으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위해 공격성을 표출한 사건이다. 물론 공격성을 타자가 아닌 자신에게 시도한 점이 일관된 패턴이다. 영혜는 외부가 아닌 자신에게 분노 표출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애착대상의 대처와 반대 방향으로 간다.

어린 시절 가족이 키운 개가 영혜의 다리를 물어뜯어 영혜 아버지가 개를 오토바이에 매달아 죽게 만든 과정이 묘사된다. 어린 발달 단계에서 내 다리를 물은 개에게 '나쁜 놈의 개, 나를 물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히 정상적이다. 딸의 다리를 문 개를 살려두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은 어쩌면 부모의 마음에 당연할 수 있다. 다만 영혜의 입장에서 자신이 들봐 온 개가 자신을 물은 것은 고통스럽지만 개를 죽이는 것은 개에 대한 처벌이 아닌 자신에 대한 처벌이었다고 느껴졌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개에게 물린 피해자가 아니라 개를 매달아 죽인 학대 행위자 중 한 명임을 동시에 실감했을 순간이다. 그래서 영혜가 남편과의 일화 중 설명하는 꿈속의 '피 웅덩이 속 비친 얼굴'은 영혜 자신일 가능성이 높다. 가학적이고 싶지 않고, 누구보다 폭력을 두려워하였기에 피하고 싶었던 공격성을 꿈에서 조우한다. 영혜의 무의식은 자신 또한 다른 방식으로 어떤 대상에게 폭력적이고 가학적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부모 관계를 살펴보면, 영혜의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의 애정 또한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다. 애절하게 고기를 안 먹는다고 말하고 자해한 딸이 입원한 병원에 영혜 어머니는 또 다시 흑염소를 사들고 와서 먹이려 한다. 거대한 모성애라기보다 거부하기 힘든 자기중심적 모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완벽하고 과잉보호적인, 헌신적 돌봄을 하고 있다고 믿는 모성의 경우 자녀의 욕구에 귀 기울이기보다 양육자 자신의 의무와 도리, 불안에 기초한 강박적인 보살핌을 하곤 한다. 자녀의 요구보다 앞질러 제공되는 자기중심적인 어머니의 돌봄은 자녀에게 오

히려 강계 및 침범의 경험으로 기억되기 쉽다. 이는 자녀를 위한 모성이 아닌 양육자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모성이다. 자녀의 바람과 욕구, 감정은 자연스럽게 무시하는 모성은 표면적인 보살핌이라 쓰지만 폭력적인 돌봄이라 읽을 수 있다.

영혜의 남편 또한 병실에서 얼핏 든 잠에 꿈을 꾸다.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있었다. 칼을 배에 꽂아 힘껏 가른 뒤 길고 구불구불한 내장을 꺼냈다. 생선처럼 뻗만 남기고 물경한 살과 근육을 모두 발라냈다. 그러나 내가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는 잠에서 깨어난 순간 잊고 말았다.”* p. 61-62

영혜 남편의 무의식은 알고 있다. 자신 또한 충분히 가학적일 뿐 아니라 표방하지 않아도 자신의 애착 대상인 영혜를 심리적으로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자신이 기대하고 열망해 온 결핌을 더 이상 채워줄 수 없는 대상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더 이상 생명력을 제공하지 않으니 버려야 하는 것이 맞다. 자신이 이 꿈을 꾸는 직후 영혜가 병실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병실 밖 벤치에서 옷통을 벗고 있는 아내를 마주한다. 여기에서 만난 영혜의 움켜 쥔 죽은 새의 시체를 본다. *“손에 있던 작은 동박새 한 마리는 포식자에게 뜯긴 듯한 거친 이빨자국 아래로, 붉은 혈흔이 선명하게 번져 있었다.”* 이 문장은 영혜와 남편의 투사적 동일시를 나타내고 영혜의 반복되어 왔던 꿈이 현실로 연결되는 과정을 묘사한다. 무의식적이고 정신적인 과정이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과정은 영혜가 더 이상 자아의 기능을 하기 어렵고, 이드의 기능에 잠식당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영혜와 남편의 투사적 동일시는 꿈과 현실에서 교차한다. 꿈에서 영혜 남편은 죽이는 행동을 하였고, 현실 속에서 아내 또한 동박새의 죽음을 맞닥뜨리며 서로의 공격성이 묘하게 연결된다.

영혜의 공격성은 원가족 내 부모로부터 비롯된다. 폭력적인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만큼 강렬하진 않아도 영혜의 어머니 또한 수동 공격적 특성을 가진 대상이다. 어머니는 영혜를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 특히 영혜가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 정서적 돌봄을 제공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정서

적 돌봄을 가칭한 음식물 제공 같은 원초적 입장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충분히 좋은 어머니’는 발달 단계에서 적절한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이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돌봄의 역할을 강조한다. 영혜가 경험한 비 촉진적인 환경은 영혜의 자아 형성에 영향을 미쳤고, 트라우마가 촉발되는 미미한 삽화적 사건을 통해 무의식 속에 누적되어 온 분노와 공포가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재연된다. 내재된 분노와 공격성을 표출하고 싶지 않아서 영혜는 스스로 채식주의를 선택했지만 자아가 취약해진 결과 구강기적 분노를 동물에게 분출한 것이다.

영혜의 어머니는 터울이 많지 않은 영혜의 남동생을 키우며 영혜에 대한 관심이 덜했을 가능성이 높고,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남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자 끝없이 순응적인 발맞춤을 했어야 했기에, 영혜는 상대적으로 모성 및 애정 박탈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 영혜의 심리적인 발달 단계는 구강기 단계에 고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충분히 좋은 어머니’의 촉진적 환경을 경험하지 못한 영혜는 존재의 연속성이 깨졌다. 자신 대신 남동생의 돌봄을 시도하는 어머니의 애정 박탈을 상대적으로 경험하면서, 영혜는 양육대상을 향해 적절한 표현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수동적인 표현 양식에 대한 양육자의 충분한 반응과 응대의 경험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19]. 영혜는 독립된 자아의 기능이 떨어져 표면적인 어머니 상을 융합하고 모델링했을 것이고, 결국 권력지향적인 남편에게 어머니처럼 최선을 다해 현모양처의 모습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영혜와 영혜의 남편이 서로에게 최대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평온함, 아니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행위 갈등을 야기하거나 서로의 이슈를 표면화하고 싶지 않은 욕구 때문이다. 원가족 내 갈등과 공격성의 표출이 재연될까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근거로 영혜는 아이를 출산하고 모성적 기능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일련의 공포와 불안이 내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인간이 촉진적 환경의 박탈을 경험할 경우, 스스로 촉진적 환경의 기능을 과도하게 이상화하여 내사한다. 혹은 촉진적 환경이 될 수 없음에 대한 강한 불안이 야기되어 극단적인 거부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19].



따라서 영혜는 가족으로부터의 이탈, 다른 길을 가는 것을 꿈꾸었기에 결국 타 종족이 되어야 함은 필연적이다. 육식을 벗어나 채식하는 것은 육식을 선호하는 가족으로부터의 분리를 꿈꾸는 것이다. 육식은 채식과 대립된 개념으로 공격성, 폭력, 남성 지배 문화를 내포한다. 고대시절부터 육식은 남성들의 점유 음식이었던 점과 계급, 계층의 상징이었음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주의자」가 되는 과정은 지배문화에 반대되는 돌봄 문화의 선호를 의미한다. 자율신경계에서 긴장을 담당하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데 육식이 주된 역할을 한다면 이완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계는 채식에 의해 활성화된다는 점과 유사한 결과일 것이다. 유아기 때부터 '박탈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성장하면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통해 스스로 치유 효과를 얻고자 하는 등 반사회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도 영혜의 행동 이유를 뒷받침한다 [20].

유아기에 안아주기를 포함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했을 때 내면의 자아통합과 자기의 형상이 적절하게 형성되지 못한다. 갑작스러운 혼란과 긴장된 상황에서 불안이 엄습할 경우 판단력을 상실하는 등 연약한 자아의 상태를 드러낼 수 있다. 이것은 영혜의 꿈을 통해 무의식이 영혜에게 말을 걸어오는 촉발요인이 된다. 아버지의 경멸과 무관심, 그것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빙자한 폭력으로 말미암아 잠입적인 불안감을 느꼈고, 영혜는 더 이상 수동적 상태로 극복하기보다 적극적 행위자를 자처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면 안 돼?” p. 64

### III. 결론

본고는 대상관계이론의 역동적 관점에 토대를 두고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에 등장하는 영혜와 그 남편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결혼에서 생성되는 부부 관계의 갈등은 다양한 증상과 병리로 나타나므로 [16], 소설 속 인물인 영혜와 남편의 관계 역동을 대상관계 관점에서 분석한 본고의 과정은 실제 임상에도 적용 가능할 수 있다.

영혜와 남편의 관계에서 어린 시절 대상관계가 서로를 선택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상세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둘 간의 정서적인 관계 패턴과 소원한 의사소통 양식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를 반복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할 때 충분히 납득된다 [15][20]. 영혜 부부의 투사 과정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영혜의 남편은 고통스러워 무의식적으로 억압한 자아의 일부분을 영혜로부터 마주한 후, 자신의 억압된 부분을 배우자에게 투사시킨다. 영혜를 배우자로 선택한 이유로 '편안했다.', '위축될 까닭도 없었다.',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다.' 라는 동사를 사용한다. 이는 영혜 남편이 생활면에서 성실할지라도 내적으로는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없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영혜를 통해 바라본 자신의 억압된 일부분, 극도의 무난함은 최악의 부적절감 이고, 영혜가 실제로 갖고 있는 부분이라기보다 영혜 남편의 환상에 해당된다. 배우자는 현실 속 실재가 아니라 자신의 억압된 욕구의 '투사체'라고 보며 [21], 이는 곧 영혜 남편의 낮은 자존감을 나타낸다 [15]. 서로를 선택한 다음 단계로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난다. 영혜와 남편 모두 서로에게 투사한 영역을 고수하며 지극히 무난한 모습, 서로에게 개입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초반에는 서로 투사하고 내사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일상 속 작은 사건을 통해 서로의 무의식적인 대상관계를 더 이상 수용할 여지는 사라진다. 어린 시절 억압받은 그 순간으로 빠르게 회귀하며 비난과 통제, 수치심의 유발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영혜 부부가 서로에게 투사하고 갈망한 심리적, 신체적 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어린 시절 애착 대상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미해결욕구를 배우자가 채워줄 것 같지 못할 때 빠른 포기가 일어난다. 부모는 숙명적으로 선택되었어도 배우자는 스스로 선택한 대상인만큼 그 선택을 버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만약 영혜 부부가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가정할 경우 우리는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을 만날 수 없었을지 모른다. 반면 갈등이 내재된 영혜 부부 관계의 역동을 분석해봄으로써 어떻게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다. 부부는 서로의 투사를 동일시해주고, 일상

속 작은 사건으로 큰 실망감을 겪거나 좌절하지 않으며 심리적으로 서로를 포용하고, 안아주는 상호 작용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21].

위니컷의 대상관계이론에서 의미하는 충분히 좋은 모성 성향의 돌봄, 촉진적 환경을 부부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판타지에서 불법한 관계의 변형은 현실 안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할 수 있다[22]. 서로를 수용하고 지지하는 관계 경험을 통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단계와 상대적으로 의존하는 단계를 거쳐 비로소 독립적인 개체로 발달 및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 의존기에서 필요한 촉진적 환경이 모성적 몰두와 안아주기인데 이 같은 적응을 통해서 부부는 서로 전능경험을 할 수 있고 존재 연속성이 확립되어서 자아의 통합이 형성될 수 있다[4]. 서로 품어주는 촉진적 환경 경험이 반복될 때 부부는 서로 자기 안의 불안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자아로 발전하게 된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외적 실재와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자신의 삶을 역동적으로 생성하고 창조적으로 살 수 있다[23]. 안타깝게도 영혜 부부는 안아주는 경험을 할 수 없었고 이상적 대상은 나쁜 대상으로 전락해버린다.

본고는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등장하는 영혜와 남편이라는 인물의 성격 분석이라기보다 관계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대상관계이론에 근거하여 내적 대상의 투사 과정을 분석하였다. 문학 속 등장인물이 우리 주변의 현실 속 타자일 것이라는 시선보다, 개인의 심리 내적 자아의 표상이라고 보는 시각은 우리의 심리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임상 장면에서 현실 속 사례를 통한 상담자 교육도 필요하겠으나 예술작품 속에 그려진 선행적인 자아와 타인의 표상을 통해 인물과 체계에 대해 탐색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이론을 통해 다양한 가설을 세워보고 검증해갈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교육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대사회는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의 빠른 변화로 부부생활양식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애착 대상과의 관계 경험이 복합적으로 투사되어 미해결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의 합일체, 부부관계의 개념을 문학 속 관계에 투영하여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부부관계 및 부부치료의 중요성이 지속적

으로 강조되지만 사실상 근본적인 치유 이전에 자신들의 어떤 내적인 욕구가 투영된 대상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탐색해보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도모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본다. 이론을 근거로 한 소설 속 인물들의 심리 분석 및 탐색 과정은 추후 임상 장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들의 삶의 스토리를 재해석하는데 충분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다[23]. 더불어 실제 사례만이 아니라 예술을 활용하여 인물 및 관계 분석할 때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임상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문학과 콘텐츠 속 다양한 인물 분석을 통한 의미 탐색이 누적될 때 임상 실천의 장 또한 확장될 수 있다고 제언을 덧붙인다.

#### 참 고 문 헌

- [1] 박흥규, *마르틴 부버 '나와 너'의 참된 만남을 통한 대화 유토피아를 꿈꾸다*, 흥성사, 2002.
- [2] 김진숙, "대상관계 가족치료이론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Vol.8, No.20, pp.137-163, 2000.
- [3] A. P. Goldstein and G. Y. Michaels, *Empathy: Development, Training and Consequences*,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1985.
- [4] 박경순, "대상관계 이론적 시각에서 본 한국 가정의 결혼 갈등과 주부 우울증," *스트레스연구*, Vol.17, No.2, pp.185-198, 2009.
- [5] Fairbairn, Endopsychic structure considered in terms of object relationship. In, Scharff D (1996), *Object relation Theory and practice* : Jason & Aronson Inc. 1944.
- [6] 김명훈, "부부 정서와 환상의 역동적 관계성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에니어그램심리역동연구*, Vol.2, No.1, pp.231-246, 2015.
- [7] M. Klein, "Notes on some schizoid mechanism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Vol.27, pp.99-110, 1946.
- [8] 한강, *채식주의자*, 창비, 2007.
- [9] 한귀은, "외상의 탈역전이 서사-한강의 「채식주의자」 연작에 관하여," *배달말*, Vol.43, p.292 2008.
- [10] 이찬규, 이은지, "한강 작품 속에 나타난 에코페미니

즘 연구: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Vol.46, pp.43-67, 2010.

- [11] 이동은, “상징과 이미지를 통한 마음 치유의 장,” 인문과학, Vol.32, pp.191-201, 2016.
- [12] 조윤정,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나타나는 인간의 삶과 트라우마,” 인문과학, Vol.64, pp.5-29, 2017.
- [13] 이만우, “임상에서 문화로, 문화에서 임상으로, 그리고 되돌아오기 정신분석과 문화 분석의 가교를 위한 노트,” 현대정신분석, Vol.7, No.2, pp.7-29, 2005.
- [14] H. V. Dicks, *Marital tensions: clinical studies towards a psychoanalytic theory of interaction*, Routledge and Kegan Paul, London. 1967.
- [15] D. E. Scharff and J. S. Scharff, *Object Relations Couple Therapy*, Jason Aronson Inc, Northvale, 1991.
- [16] M. S. Mahler, F. Pine, and A. Bergman,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ile*, Basic Book, New York, 1976.
- [17] 박경순, “결혼 갈등, 대상관계 수준과 우울의 관계,” 스트레스연구, Vol.21, No.4, pp.293-302, 2013.
- [18] 이창재, “꿈의 기원과 의미에 대한 정신분석적 해석-프로이트와 현대 정신분석 관점 비교,” 라캉과 현대정신분석, Vol.9, No.1, pp.113-158, 2007.
- [19] D. Winnicott, *The Maturation Processes and the Facilitating Environment: Studies in the Theory of Emotional Development*, 이재훈(역), *성숙과정과 촉진적 환경*, 서울: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 [20] M. Davis and D. Wallbridge, *Boundary and Space : An Introduction to the Work of D. W. Winnicott*, 이재훈(역), *울타리와 공간*,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2.
- [21] D. Scharff, *Object relations Theory and Practice*: Jason & Aronson Inc., 1996.
- [22] W. R. Bion, *Learning from Experience*, London: Heinemann, 1962.
- [23] 최지원, 유혜원, “지혜로운 중년 부부의 부부관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Vol.26, No.1, pp.77-107, 2018.
- [24] 차민영, “엘리자베스 김의 만 가지 슬픔에 나타난 모성의 양상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 Vol.38, pp.153-174, 2016.

저 자 소 개

최 지 원(Ji-Won Choi)

정회원



- 1998년 8월 :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문학석사)
- 2013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상담 및 임상심리전공(문학박사)
- 2020년 9월 ~ 현재 : 서울신학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상담교수

〈관심분야〉 : 이야기치료, 가족치료